

S#0 (주방) - 서울, 엄마

4월쯤의 따뜻한 봄. 나른한 오후의 햇빛이 들어오는 집의 주방. 4인용 식탁에 서울이 앉아 디저트 볼에 담긴 아이스 홍시를 먹고 있다. 서울의 옆 의자에 올려져 있는 빨간 볼의 애착 인형. 서울은 기분이 좋은 듯 고개를 흔들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. 아이스 홍시의 마지막 손가락을 떼, 애착 인형에게 먹여줄 듯 행동하는 서울. 하지만 자신의 입으로 들어간다. 마지막 한 입을 먹은 후, 행복한 표정을 짓고는 금방 아쉬운 표정을 짓는 서울. 반짝이는 눈으로 거실 쪽으로 몸을 돌리며, 말한다.

서울 : 엄마 나 다 먹었어! 하나만 더 줘.

거실 소파에 앉아있다가 주방으로 다가오는 엄마. 엄마의 배가 임신 6개월쯤으로 살짝 불러있다. 서울의 볼을 한번 꼬집는다.

엄마: 으이구.. 홍시 많이 먹으면 응가 힘들다고 했잖아~ 우리 서울이 응가 못해서 배가 이~따 시만 해지면 어떡해!!

서울: (깜짝 놀라며) 엄마.. 그럼 엄마 배는 응가를 못 해서 이~만해진 거야...? (시무룩하며) 나 안 먹을래... 서울이 배도 이만해지면 어떡해...

엄마: (서울이 귀여운 듯 웃음을 지으며) 우리 서울이. 많이 먹고 싶어?

서울이가 엄마를 반짝이는 눈으로 올려본다.

엄마: 알겠어. 오늘은 서울이 축하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 더 줄 게

신이 난 듯 좋아하는 서울. 냉장고를 열어 아이스 홍시를 꺼내, 디저트 볼에 담은 엄마. 아이스 홍시를 서울의 앞에 놓는다. 바로 손가락을 들고 홍시를 떠먹는 서울.

서울: (입을 오물거리며) 엄마 근데 뭐? 축하할 일이 뭐야?

엄마: 서울아

서울이가 엄마를 올려다본다.

엄마: 엄마 배에 손 올려 볼래?

서울: (손가락을 입에 문 상태로 궁금한 듯 엄마에 배에 손을 댔다가 순간 깜짝 놀란다) 배가 움직여!!

엄마: 어머 어머! 서울이 동생이 언니한테 반갑다고 인사하나 보다

서울: 동생?

엄마: (서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살짝 웃으며) 엄마 뱃속에 서울이 동생이 있는데, 날씨가 아주 많이 따뜻해지면, 동생이 집으로 올 거야, 서울이 동생 오면 홍시도 나눠주고 맛있는 언니가 돼 줄 수 있지?

서울: (입에 물던 손가락을 갑자기 빼면서 놀란 표정)